

헌 양복들의 행진

옷장을 보니 옷이 많이 걸려 있다. 그 중 양복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오랫동안 거의 양복만 입고 살았기 때문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양복을 입고 교회로 출근하고 퇴근했었다. 그런데 서부로 이사 온 후로는 생활 패턴이 바뀌어 매일 입는 옷이 양복에서 청바지와 티셔츠가 되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서 양복을 찾아보니 많은 것이 맞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바지통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다. 이전과 같이 그렇게 크게 입는 사람이 없다. 만일 그것을 입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보고 웃을지도 모른다. 또한 몇 년 간 내 몸무게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전에 맞던 양복 사이즈가 이제는 많이 헐렁하다.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 때에는 배가 지금 보다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복의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그 많은 양복들을 아직도 옷장에 모셔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 중에 맞는 쪽에 속하는 것을 골라서 한 쪽으로 놓고 도저히 입을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것들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양복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다시 맞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고 혹시나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을 보니 그럴 것 같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작어지고 구부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몸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옷장이 훨씬 한가해 질 것이다.

나의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 촛티를 벗지 못하고 세상을 활보하며 살지 않을까?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새것만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옷으로 상황에 맞게 몸에 맞추어 입고 다닌다면 나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라고 하시며 묵은 것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은혜로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새로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때에 세상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도 맞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 분은 이민이 열리기 이전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셔서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는 이민 오신 분들을 돕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 노인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이다. 한국을 알리기 위하여 음식을 퍼 나르던 분이다. 그분은 늘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오셨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데 그 분의 마음을 알고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입는 옷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여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던 분이시다. 얼마나 멋진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고 세상에서는 훌쩍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늘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하다.